



■ 라틴아메리카 도시화의 특성

김 희 순

1. 들어가며

이 세상에 똑같은 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도시는 하나의 인격체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개성을 지니며, 나름의 히스토리와 각기 다른 매력을 갖는다. 허나 우리가 영화의 배경이나 관광 안내책자에서 마주하는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 들어서 있고 각자의 역사를 지니지만 남미 도시 특유의 비슷한 느낌을 준다. 타스코의 광산도시, 거대한 그리스도상이 굽어보이는 리우데자네이루, 천사상(Torre del Angel)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멕시코시티, 카리브 해의 관광도시 칸쿤까지 그 기원과 형성과정이 서로 다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상이하지만, 분명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은 다른 대륙의 도시들에

비해 상당한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공통점은 다수의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이 식민 지배와 깊은 관련을 갖는 점에서 기인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300여 년의 지배 기간 동안 도시를 식민 지배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이를



페루 리마의 카야오 항구(1671년 작품)

위하여 수많은 도시를 만들었다. 특히 스페인인들은 도시를 만드는 데 탁월하였다고 평가받는다. 1492년 스페인어 문법책이 완성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부족을 하나의 언어로 통합할 수 있었다면, 16세기 제정된 인디아스 법의 도시편으로 인하여 식민 지배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안된 비슷한 형태 및 구조의 도시들이 식민지 전역에 걸쳐 건설되었다. 이에 더하여 중미와 남미 대륙의 지형적 특성과 유럽과의 교역상의 우위로 인하여 도시 입지의 최적지로 고원이나 항구가 선호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지형적 조건은 라틴아메리카 도시 전반에 유사한 속성을 부여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도시 형성에 미친 식민 통치의 영향과 도시화의 특성, 도시 내부 구조의 특성 등을 통하여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도시 형성에 미친 식민 통치의 영향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도시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 시기, 이들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거나 변화하였다. 식민 통치의 경험은 도시의 형성 과정과 내부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식민 지

배의 경험이 도시 형성 과정에 미친 영향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식민 시기 이전부터 주요 중심지였으며 식민 시기에도 식민지배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한 도시들이다. 아스테카의 수도였으며 이후 누에바에스파냐의 부왕청이 설립된 멕시코시티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유럽과 식민지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교통 중심 도시들이다. 베라크루스는 남미의 선박들이 모여서 스페인으로 출발하던 곳이다. 멕시코시티 동편의 베라크루스가 라틴아메리카와 유럽을 잇는 항구였다면 서편의 아카폴코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항구였다. 아카폴코에서는 필리핀의 마닐라로 향하는 배들이 출발하였으며 이들은 중국 상인을 비롯한 아시아 상인들과 교역하였다. 이외에도 식민지 세력에게 남미의 관문 항구였던 카르타헤나, 리마의 전진 항구라 할 수 있는 카야오 등이 있었으며 산투스, 상파울루는 브라질의 농업지역과 유럽을 잇는 항구들이었다.

세 번째는 인디오 혹은 외적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하여 형성된 전진기지, 즉 프레시디오, 미션, 요새 도시 등이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투산 등 미국 서남부의 도시들과 라파스, 시우다드 후아레스 등 멕시코 북부의 도시들은 북미 인디오 세력에 대항하는 전진 방어기지이자 미개척지의 탐사기지, 그리고 인디오들의 기독교화를 위한 중심지로서 건설된 프레시디오와 미션을 기원으로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파타고니아의 도시들은 본래 포르투갈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건설되었으며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 해안을 위협하는 프랑스 군에 대항하는 군사기지로 건설되었다. 한편 쿠바의 아바나와 북미 최초의 도시인 플로리다 반도의 샌어거스틴은 스페인으로 향하는 은

선단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요새도시로서 건설되었다. 베라크루스에서 출발한 선단은 플로리다와 아바나 사이의 플로리다 해협을 지나 멕시코 만류를 타면 쉽고 빠르게 유럽에 도착하였다. 멕시코 만류는 식민지와 유럽을 잇는 일종의 바다 위의 고속도로였던 셈이다. 프랑스 및 영국 해군의 지원을 받은 해적들은 은을 실은 선박들을 노리며 플로리다 해협 근처에 출몰하곤 하였으며 이는 『카리브 해의 해적』이나 『보물섬』과 같은 이야기의 기원이 되었다.

네 번째는 광산업 관련 도시들이다. 멕시코시티 남쪽의 타스코, 북쪽의 과나후아토, 산미겔데아엔데 등은 은광이 발견됨으로써 발달한 도시들이며 브라질의 미나스제라이스는 금광의 발견, 디아만티나는 다이아몬드광의 발견으로 형성된 도시이다. 은을 비롯한 금, 다이아몬드 등의 귀금속 채굴업은 식민 시대 라틴아메리카의 가장 주요한 산업이었다. 1540년 타스코에서 발견된 은광은 누에바에스파냐 지역 은광 산업의 시발탄이 되었으며 멕시코 중앙 계곡에서는 다수의 은광이 차례로 발견되었다. 1546년 포토시에서 발견된 광산은 라틴아메리카 전체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당시 광산업은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었으며 채굴 과정에서부터 막대한 규모의 가축, 목재, 양초, 수은 등이 투입되었다. 광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식량기지와 가축 재배지가 필요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멕시코에서는 바히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목축·농업이 발달하였으며, 팜파의 북부는 20만에 달하는 포토시 인구의 식량생산기지가 되어 곡물 재배와 목축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현재 이 지역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주요 목축·농업지역이다.

도시에 대한 식민 시대의 영향력은 도시 형성의 원인에만 그치지 않았다. 스페인 정부는 인디아스 법에 따라 도시를 주변 농



멕시코 게레로 주의 타스코(Taxco). 은광 도시로 유명하다.

촌 배후지의 행정중심지로 삼았다. 따라서 도시를 둘러싼 농촌은 행정적으로 도시에 속하였으며, 배후지를 경영하기 위한 행정, 교육, 정치, 경제, 종교 등 사회 제 기능이 도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도시들의 존재와 성장의 요인으로는 배후지와의 경제적·사회적 교류보다는 스페인과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하였다. 게다가 대부분의 도시들은 스페인과 직접 연계되어 있었지만 식민지 내 다른 도시들과는 연계되지 않았다. 이는 스페인이 식민지를 지배한 기본적인 전략 중의 하나로서 식민지 지역 간의 어떠한 교류도 스페인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의 영향이었다. 즉, 식민지의 도시들은 일정 면적의 배후지를 지배하기 위하여 세워진 거점이었으나 거점과 배후지 간의 관계는 지배라는 일방적인 것으로 상호간의 교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으며 거점들 간의 직접적인 교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17세기

이후 포토시의 은이 스페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마닐라로 유입되기도 하였으나 도시 간의 교류를 금지하는 스페인의 식민지배 원칙은 도시 체계 발달의 주요한 원동력을 차단하였다. 이는 훗날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이후 사회의 제 기능이 지속적으로 기존의 식민 지배 거점으로 집중되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20세기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도시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도 및 소수의 중심지로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로써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도시 체계는 1위 도시만이 유난히 비대한 ‘수위도시화’ 혹은 ‘종주도시화’ 라는 특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종주도시화란 한 국가내의 도시 시스템에서 하나의 도시에 인구가 과중하게 집중되고 그에 비해 2, 3위 도시의 인구규모는 작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3. 도시화의 특성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경제 발전단계에 비해 높은 도시화율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UN 경제사회분과(UNDESA)의 2007년 보고서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0년 전 국민의 90%, 베네수엘라의 경우 94%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화율이 낮은 국가인 아이티와 과테말라의 경우에도 2010년 도시화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화의 기준은 각 국가마다 상이하나 라틴아메리카의 도시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심지어 아마존은 ‘도시화된 정글(urbanized jungle)’ 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개발과정이 지역 단위가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으

로부터의 이주민들이 도시에 주로 정착하면서 도시화율이 빠르게 높아졌고 멕시코의 경우 근대화가 시작된 19세기 말, 20세기 초 도시화가 시작되었으나 도시의 급속한 성장은 194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과테말라나 아이티와 같은 국가들의 도시화 속도는 이보다 조금 늦다.

일반적으로 도시화의 원인으로 이촌향도 현상을 든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도시는 자체적인 인구 성장과 이촌향도 두 가지 원인에 의해 급속히 성장하였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도시화는 인구변천 단계와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을 전후하여 인구변천의 2단계, 즉 다산소사의 단계에 접어들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인구증가세는 1960년대 정점에 달해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연간인구증가율이 2.9%에 이르렀으며 인구 배가 기간은 23.8년밖에 되지 않았다. 1960년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연간인구증가율은 2.5%를 상회하였으며 멕시코는 3.5%를 기록하였다. 이는 당시 인구성장세라면 19.7년, 즉 20년 이내에 멕시코의 인구 규모가 두 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시 인구는 전체 인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비슷한 시기 라틴아메리카 주요 도시의 연간인구성장률은 5~6%를 상회하였다. 연간인구성장률 5%는 11.8년, 즉 12년 이내에 도시 인구 규모가 현재의 두 배에 이른다는 의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식민도시들에는 일정한 배후지를 통치하기 위한 행정, 경제, 군사, 종교, 교육 등 사회 전반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외의 지역에서는 교역이나 방어 기능 이외에는 도시가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식민지의 전진기지 역할을 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적 기능이 집중되고 교통·통신이 발달하게 되어 그 외 도시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지체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게다가 1940년대 이후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시행한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은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방식, 즉 거점개발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도시, 특히 수도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고 사회기반 시설도 수도를 중심으로 집중되었다. 반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에서는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할 만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농촌 출신 인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혹은 농촌의 빈곤에 내몰려 도시로 이주하였다. 이주의 법칙에 의하면 이주는 장거리보다 단거리로 일어날 확률이 높다. 즉, 농촌 거주자의 경우 주변의 중소 도시로 먼저 이주한 후 대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도시화는 수도나 제1의 도시로 직접 향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식민 시대에 이루어진 수도 혹은 제1 도시로의 제 기능의 집중 관성 그리고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이 지닌 경제 발전의 대도시 편중 경향으로 인해 근거리에 위치한 중소도시보다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도시가 촌락민들을 더욱 강하게 흡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수의 도시가 과도하게 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라틴아메리카 도시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4. 도시 내부 구조의 특성

인구변천 2단계를 거치면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경제성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

회의 인구 부양력은 감소하고 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며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의 도시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중심지로서 도시 기능은 그에 맞추어 적절하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도시 기능의 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채 도시 인구의 증가만으로 이루어진 도시화 과정을 가(假)도시화 현상이라 한다. 19세기 및 20세기 유럽 및 미국에서 나타난 도시화 과정이 도시의 산업화로 인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분의 고용의 증대로 인한 것인 데 반하여 20세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나타난 도시화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도시 자체 인구의 증가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경제의 피폐에 그 원인이 있다. 즉, 산업화에 따른 도시 고용의 증가, 다시 말해 일자리의 창출로 인해 유입된 농촌노동인구가 도시의 성장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인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입한 이농민들이 도시성장을 주도한 것이다. 이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은 수용능력을 초과한 인구규모를 갖게 되었으며 도시민을 위한 주택과 사회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가난한 농민에서 도시빈민이 된 이들은 시가지 내의 공유지나 도시 외곽에 대규모 불량 주택지구를 형성하였다. 불량 주택지구 거주 인구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으나 라틴아메리카 도시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불량 주택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우 천 8백만 도시 인구 중 약 천만 명이 불량 주택지구인 파벨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대표적인 파벨라인 호싱냐의 경우 영화 <신의 도시>의 배경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불량 주택지구 문제를 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최근 호싱냐 지역을 둘러보는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 불평등을 알리고 지역 주민의 자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호싱냐

투어는 틈새 관광 중 재앙 관광의 하나로, 대부분의 재앙 관광이 허리케인, 쓰나미, 화산 폭발, 원자로 폭발 등과 같은 자연 재해 및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경제 전반의 문제점을 그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불량 주택지구는 대부분 도시 내부나 외곽의 공유지에 분포하며 사유지나 차용지에도 존재한다. 대부분 산등성이나 저습지 등 활용 가치가 낮은 토지에 들어서 있으며 도로, 전기, 수도 등의 사회기반 시설이 열악하거나 제공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가옥은 처음부터 계획하여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경제력이 허락하는 만큼 지었다가 여력이 생길 때마다 새로이 방을 짓고 부엌을 들이고 층을 올리기 때문에 한 건물 내에서도 서로 다른 건축자재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높은 밀도의 불량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대부분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며 일부 불량 주택지구는 폭력조직의 지배와 보호를 받아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인 경우가 종종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도시가 거대한 불량 주택지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가지의 상당 부분이 불량 주택지구가 양성화된 것이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도시 중심부는 고풍스러운 성당과 석조 건물, 우아한 공연장이 플라자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유럽 도시와 같은 느낌을 준다. 이들과 어우러진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중심지 가까이에 위치한 엘리트들의 고급스러운 주거지로 인해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경관들은 식민 시대가 남긴 일종의 화석 경관들이다. 화석 경관이란 과거 경관의 흔적이 지명, 가로망, 건축물 등 현재의 경관 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도시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인디아스 법의 영향을 받아 각 도시의 내부 구조에 남겨진 이

러한 식민 시대의 화석 경관들 때문일 것이다. 식민지 통치 전반에 관하여 명시한 인디아스 법 중 도시 건설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식민지의 도시 건설에 관한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인디아스 법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은 도시 중앙에 자리 잡은 광장인 플라자, 플라자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성당, 성당과 다른 면에 위치한 공공건물들, 플라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류층의 주거지와 상업 지구, 격자형 가로망, 상류층 주거지의 외곽에 형성된 중하위층의 주거지, 그리고 그 너머 촌락에 인디오 거주지구 등을 갖추어 건설되어야 한다. 플라자를 비롯한 도로는 반드시 포장되어야 하고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도시 정부는 시민들에게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살장, 묘지 등 불결한 시설들은 반드시 바람이 불어 나가는 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의 라틴아메리카 주요 도시들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시가지의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져 이러한 역사적 도시 경관들은 주로 중심부, 특히 CBD 지역에 남아 있어 디테일한 변화는 있으나 도시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건재하다. 이외에도 상류층이 중심지를 선호하는 경향이나 도시 외곽에 불량 주택지구 및 하층민 거주지가 발달하는 경향, 유럽의 영향을 받은 가로수길 대로를 따라 자리 잡은 고급 상업 지구 및 중산층 이상의 주거지 등은 아직도 라틴아메리카 도시 구조의 주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도시 구조 이외에도 라틴아메리카 도시에는 여러 종류의 화석 경관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시티 남부에 위치한 소치밀코에는 복잡한 수로망에서 배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유명한 유원지가 있다. 사공이 끄는 배에 올라 뱃놀이를 즐기고 있노라면 음식을 파는 배들이 다가와 식사나 간식을 팔기도 하고 배에 승선한 채로 마리아치 배를 나란히 붙여서 선상 가무를 즐길 수도 있

다. 이곳은 치남파(chinampa)라고 하는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농경 방식의 화석 경관이다. 치남파는 나우아어로 물에 뜬 경지(floating garden)라는 뜻을 지니며 쿠스코에서는 와루와루라고 하였다. 과거 테노치티틀란이나 쿠스코에서는 호수의 가장 자리에 말뚝을 박고 버드나무를 심어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으며 이에 객토를 하여 농경지를 만들었다. 즉, 치남파는 호소 간척의 한 방법이었다. 아마도 텍스코코 호수를 간척해서 시가지를 조성한 멕시코시티의 간척공사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농경지와 농경지 사이가 물길이어서 배를 타고 다니며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이러한 농법은 관개를 하지 않아도 가뭄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비옥한 호소 충적토로 이루어져 생산성이 매우 높았다. 이는 시가지의 성장에 따라 도시로의 접근성이 높아진 농업지대가 도시의 위락 경관으로 변화한 경우다. 이러한 경관 이외에도 인디오어식 지명에서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경관을 유추할 수도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도시 곳곳에 과거의 경관들이 그 흔적을 남겨 놓았다.



치남파 농법으로 경작하는 소치밀코의 농부

5. 마치며

이 짧은 지면에 부족한 지식으로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특성에 관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각각의 도시들은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의 예외가 되는 도시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라틴아메리카 도시가 라틴아메리카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에게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이 유사하게 느껴지는 데는 아마도 도시 내부 구조에 남아 있는 식민 시대 경관의 역할이 가장 클 것이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유사성은 식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도시의 기능과 형성 원인뿐 아니라 비슷한 경향의 도시화 과정,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전반의 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근거리에서 위치한 광산 도시인 타스코와 과나후아토의 경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시의 형태, 도시의 색채, 가로망의 구조 등에서 분명 차이가 나타난다. 라틴아메리카는 언뜻 보기에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라틴아메리카를 하나의 지역단위가 아닌 다양한 특색을 지닌 지역들의 총합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세계체제 속의 라틴아메리카를 거대한 스케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계화와 함께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지방화는 하나의 국가·도시·지역의 독립적 공간단위로서 지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남영우, 2006, 세계도시론, 법문사.

남영우, 2007, 도시공간구조론, 법문사.

마스다 요시오, 신금순 옮김, 2003, 이야기 라틴아메리카사, 도서출판 심산.

- Blout B. W. et al. (eds.), 2006,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 Systematic and Regional Survey* (5th ed.), Wiley, NJ.
- Blout B. W. et al. (eds.), 2009,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 Systematic and Regional Survey* (6th ed.), Wiley, NJ.
- Clawson, D. L., 2006,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ands and Peoples*, McGraw Hill, NY.
- Meyer M. C. et al. (eds.), 2000, *The Oxford History of Mexico*, Oxford University Press, NY.
- Peters, G. L. et al., 2005, *Population Geography: Problems, Concepts, and Prospects* (8th ed.), Kendal-Hunt Publishing Company, Dubuque.

김희순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